

【논 문】

조선 성종대의 여진인 “來朝” 연구

박 정 민*

■ 차 례 ■

1. 머리말
2. 성종대 여진인 내조와 조선의 대응
3. 성종대 여진인 내조의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의 제도가 완비된 성종대의 여진인 내조의 현황을 중심으로 조선이 여진인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종대에는 이전 왕대의 여진 정책을 계승하여 재위 연간 344회에 이르는 여진인 내조가 있었다. 따라서 성종대 여진인 내조의 현황을 그 시간의 추이 과정과 세력별, 월별 등으로 분석하여 조선이 여진인의 내조를 통제하는 양상과 수용 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진인의 내조는 조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고, 이를 통해 조선은 명의 질서를 인정하는 가운데 다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여, 이들에 관한 접대규정 및 내조 시기 등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및 시기 등은 명이 여진인에게 행한 것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 특히 여진인의 내조 시기가 11월, 12월, 1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여진인이 동지와 정조의 하례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성종대는 각종 제도와 의례의 완비와 맞물려 여진인의 내조 횟수, 인원, 시기 등을 재정비하는 시기였고, 후대 왕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성종, 여진, 내조, 의례, 지역질서

1. 머리말

성종의 재위 연間は 조선 건국 이후 추진되어 온 여러 제도가 정비되던 시기이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증보와 교감 끝에 『經國大典』이 완성 및 반포되었다.¹⁾ 이와 함께 성종대에 『국조오례의』,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악학궤범』 등과 같이 당시까지의 예·악·지리·역사서가 집대성되었다.

정치적으로도 탄핵과 간쟁을 활발히 전개한 대간을 통해 대신과 대간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鼎立構圖’가 조성되었다. 나아가 삼사 제도도 확립하며 수준 높은 유교 정치를 구현하였다.²⁾ 더불어 관수관급제 등의 조치와 함께 사림을 적극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고, 집현전 관련 직제들의 부활과 확대도 이루어졌다.³⁾

이러한 대내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과 안정화는 대외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즉 단단한 기반 위에 조성되는 정치 역량은 조선의 외교 역량까지 강화하여, 특히 대여진정책의 능란한 전개를 가능하게 했다. 성종 10년의 ‘建州衛 정벌’과 동왕 22년의 ‘尼麻車兀狄哈 정벌’ 등과 같은 강경책이나 여진인의 내조⁴⁾ 수용과 관직 제수 등으로 대변되는 회유책을 적극 구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위와 같은 조선의 안정과 성장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 결과 조선은 대여진관계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도 이러한 점에 관심을 두고 ‘建州衛 정벌’과 니마차울적합에 대한 ‘北征’에 집중되었다.⁵⁾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성종대의 건주삼

1) 이성무, 1990,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역사학보』 125, 93~95쪽 ; 박병호, 1994, 「『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한국사』 22, 207~213쪽 ; 오영교, 2004, 「조선전기 法典의 정비와 『經國大典』의 성립」,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 혜안, 68~91쪽.

2) 김범, 2005, 「조선 성종대의 왕권과 정국운영」, 『사총』 61, 192쪽.

3) 한충희, 1994,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한국사』 22, 136~143쪽.

4) 내조의 유래와 의미, 개념에 대해서는 박정민, 2010, 「세조대의 여진 관계와 정책 - 여진인 내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51, 각주 14번에 정리되어 있다.

5) 園田一龜, 1953, 「建州女直と朝鮮の 新關係」, 『明代建州女直史研究』(續), 東京國立書院 ; 河内良弘, 1989, 「李朝成宗時代の女眞と朝鮮」, 『朝鮮學報』 133(그의 논문은 모두 『明代女眞史の研究』, 京

위와 제종을적합의 생활실태, 내조와 침구양상 등에 대한 자세한 고찰도 진행되었다.⁶⁾ 그러나 회유책의 일환인 여진인 내조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⁷⁾ 특히 성종대 여진인 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올랑합과 알타리, 토착여진 등에 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성종대 여진인 내조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건주위와 제종을적합 뿐만 아니라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면서 조선과 깊은 관계를 맺은 올랑합과 알타리, 토착여진 등의 현황과 성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서 의례와 예제 등을 분석하여 조선의 위상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⁸⁾ 특히 정다함은 조선이 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명의 ‘흠차관’을 차용하여 ‘경차관’으로 한 단계 낮추어 여진인과 대마도를 자신의 신하로 설정했음을 살펴보았다.⁹⁾ 이러한 견해는 당시 국제질서를 어떻게 설정하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시사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논지가 좀 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이러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동조하는 견해에서 조선 초기 여진인의 내조 양상을 분석하여, 조선이 이들의 내조를 수용한 의

都；同朋舍，1992에 재수록 되어 있다)；강성문，1989，『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군사』 18；刁書仁，『成化年間明與朝鮮兩次征討建州女眞』 『史學集刊』，1999年 2期；于曉光，2006，『明朝與朝鮮圍繞女眞問題交涉研究』，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계승범，2006，『파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53；王臻，『明前期建州女眞與朝鮮明朝的關係探析』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8年 04期。

- 6) 김순남，2009a，『조선 成宗代 兀狄哈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보』 49；2009b，『조선 성종대의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68.
- 7) 김구진도 조선 전기 여진인 내조 횡수를 살펴보는 가운데 성종대 여진인의 내조 횡수를 371회로 파악하였지만，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1994，『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350쪽)
- 8) 최중석，2010，『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2012；정동훈，『명대의 예제 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 9) 정다함，2008，『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동방학지』 141. 그는 이후에도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며 조선이 여진과 대마도 등 교린의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우월적 지배에 대해 논증하였다.(2009，『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朝鮮에서의 漢語，漢吏文，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2011，『‘事大’와 ‘交隣’과 ‘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 42)

도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를 연장하여 성종대의 여진인 내조 현황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어떤 경향과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진인의 내조를 시간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 살펴봄으로써 성종대 대여진정책의 향방을 밝힐 것이다. 또한, 세력별, 월별 분석을 통하여 조선이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한 목적과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성종대 여진인 내조 수용의 방향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이 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성종대 여진인 내조와 조선의 대응

성종은 요절한 예종을 이어 1469년 11월 28일에 즉위하였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그는 정희왕후와 훈신들의 추대로 13세에 왕위에 오른 뒤 대비의 수렴청정을 받았다. 또한, 예종대의 院相이었던 신숙주·한명회 등 9명이 여전히 원상으로서 국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정치적 주도권은 정희왕후와 원상을 포함한 대신들에게 공유되었다.¹¹⁾ 따라서 성종 재위 초반의 대여진정책에 이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종의 갑작스러운 붕어에서 비롯된 정치 환경의 변화는 여진 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즉위 다음날인 11월 29일에 조선조정은 쭈뼛이 지난 후 여진인의 상경을 허락하기로 하였다.¹²⁾ 물론 예종의 부고 소식을 듣지

10) 박정민, 2012, 「조선 세조대의 여진인 내조와 여진인 귀속문제」, 『전북사학』 41 ; 2013, 「조선 건국기 여진인 내조와 조선의 외교구상」, 『역사학연구』 49 ; 2013, 「조선 세종대의 여진인 내조와 통교 체제의 정비」, 『한국역사연구회발표문』.

11) 이동희, 1997, 「朝鮮初 院相制下の 承旨」, 『전북사학』 19·20 ; 최승희, 2001, 「成宗期の 國政運營體制와 王權」, 『조선사연구』 10 ; 김범, 2005, 『朝鮮前期의 王權과 政局運營 - 成宗·燕山君·中宗代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못하고 내조한 자들은 이미 상경하는 중이었다. 때문에 12월 7일에 올랑합 都萬戶 劉阿赤介 등의 내조가 보인다.¹³⁾ 하지만 이듬해 1월 2일에 내조한 豆未應巨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졸곡 기간에 여진인을 금지하기로 한 조선조정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성종 즉위 직후의 내조는 예종대의 내조와 관련이 있다.¹⁴⁾

〈표 1〉 성종대 여진인 내조¹⁵⁾

	올랑합	올적합	알타리	토착여진	건주삼위	온하위	계
즉위년	3	4	1	1			9
성종 1	8	9	3	2			22
성종 2	4	5	2	2			13
성종 3	7	6	4		1		18
성종 4	10	6	5	2			23
성종 5	9	9	2		1		21
성종 6	5	7	1				13
성종 7	6	1	4				11
성종 8	6	2	1				9
성종 9	6		1				7
성종 10	7	3		2			12
성종 11	7	3	5	1			16

12) 『성종실록』 권 1, 즉위년 11월 29일 기유.

13) 『성종실록』 권 1, 즉위년 12월 7일 병진.

14) 즉 예종 1년의 내조 9회를 합하면 이해에만 총 18회의 내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 1>의 횟수 산정에서는 성종 즉위 직후에 내조한 것도 성종대에 포함하였다.

15) 김순남은 성종대 올적합의 내조 사례를 홀라온(화라온) 19회, 험진 1회, 골간 21회, 니마차 8회, 남닐 2회, 종족 표기 없이 기재된 올적합 20회로, 총 71회로 파악하였다(김순남, 2009a, 앞의 논문, 47쪽, 부록 【성종대 올적합의 내조 현황】). 하지만 여기에는 누락된 사례와 중복명이 잘못 기재된 사례, 그냥 올적합이라 기재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 본고에서는 이를 검색 및 대조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성종 12	3	1	1	1			6
성종 13	4	3					7
성종 14	4	2	5	2	5		18
성종 15	4	1	2		4		11
성종 16	9	4	3		4		20
성종 17	3	2	1		3		9
성종 18	2	1	2		1		6
성종 19	9	3	3				15
성종 20	9	3	1	2			15
성종 21	8	3	2				13
성종 22		1	2				3
성종 23	15	1	4				20
성종 24	7	2	3	1			13
성종 25	6	3	2	2		1	14
합계	161	85	60	18	19	1	344
점유율(%)	46.80	24.71	17.44	5.23	5.52	0.29	100

본격적인 성종대 여진인의 내조는 성종 원년으로, 그 중 11월과 12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9월 17일에 “전에는 여러 종류의 야인이 만일 서울에 올라와서 肅拜하고자 하면 하교를 기다리지 않고 정한 인원수에 의해서 올려 보냈다. 그런데, 요즘은 반드시 유시를 기다렸다가 보내니, …(중략)… 이제부터 다시 옛 관례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라.”며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여진인의 상경을 허락하였다.¹⁶⁾ 즉 지난해 국상 때문에 여진인의 내조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이제 예전처럼 하교를 기다리지 않고, 관례에 따라 상경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이 전처럼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한 것은 먼저 신왕의 즉위

16) 『성종실록』 권 7, 1년 9월 17일 임진.

이후 처음으로 맞는 망궐례와 정조하례에 이들을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였다.¹⁷⁾ 특히 성종 원년 12월에만 18회의 여진인 내조가 있었는데,¹⁸⁾ 이는 이듬해에 실시하는 정조하례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년(1471) 1월 1일의 망궐례 이후 회례연의 자리에 여진인과 왜인이 참석했다. 그 중 金波乙大에게 명하여 술잔(鬪)을 바치게 하고, 李多弄介에게 술을 내려 주며 여진인과 왜인에게 물건을 내려 주었다.¹⁹⁾ 김파을대와 이다롱개는 각각 올랑합과 골간올적합으로 세조대부터 조선에 내조한 주장이다. 이들은 내조자 가운데 가장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조선의 의례를 잘 인지했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한 여진인과 왜인 가운데 대표로 酬酌한 것이다. 그리고 여진인이 조선의 의례에 참석하는 것은 조선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왕 즉위를 마친 후 조선은 굳이 이들의 내조를 독려할 필요가 없었다. 여진인의 내조 수용은 역로의 피폐와 접대비용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조선은 이들의 내조 횟수를 조절하고자 했다. 이에 성종은 여진인의 평상시 내조가 14~15운 정도지만, 최근 영안도와 강원도, 경기도에 흉년이 들어 평소대로 수용하기 부담스러워 하였다. 하지만 전례를 살펴봐도 세조 이래로 매년 적어도 10여 회부터 많으면 30~40여 회로 해마다 수가 달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²⁰⁾ 이처럼 성종은 흉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소의 여진인 내조 횟수를 줄이기 위해 담당자인 영안북도 절도사인 어유소에게 횟수를 정하여 알맞은 조처를 하게 한 것이다.²¹⁾

17) 세종이나 세조대 여진인의 내조 경향을 보면 신왕의 즉위와 이들의 내조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확인된다.

18) 이는 성종 연간 12월에 있었던 여진인 내조를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이다.

19) 기록에 이들이 정조하례에 참석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관례상 이들은 하례에 참여했을 것이다. 『성종실록』 권 9, 2년 1월 1일 갑술)

20) 실제로 세조대 여진인 내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0회 이하였던 적은 세조 10년의 7회, 13, 14년의 9회뿐이고, 가장 많은 사례는 1년과 6년으로 37회였다. (박정민, 2012, 앞의 논문, 89쪽) 따라서 위의 사료에서 산출한 여진인 내조 횟수는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21) 『성종실록』 권 21, 3년 8월 20일 갑신.

상식적으로 조선이 이러한 폐단과 부담을 느낀다면 여진인의 내조를 굳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성종은 그 횡수를 줄이더라도 이들의 내조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여진인 내조 수용은 단순히 이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여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이 잘 대변되는 것이 바로 성종 3년(1472)부터 5년 사이에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올랑합과 알타리, 골간올적합 등의 내조 수용이다.

당시 具州의 니마차올적합이 5진의 올랑합과 알타리를 공격하여 양자의 관계가 악화되었다.²²⁾ 이때 조선조정은 藩籬인 올랑합과 알타리 등의 안정을 위해 지대의 폐단에도 평소보다 많이 내조를 수용하였다.²³⁾ 반면 침입의 주체인 구주올적합은 조선의 피로인과 가축도 쇠환하지 않으므로 상경을 금지했다.²⁴⁾ 그 결과 성종 3년 9월부터 두만강유역 여진인의 내조가 보이지만, 상경을 금지한 니마차의 내조는 없었다.²⁵⁾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니마차의 침입을 완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성종 5년경부터 니마차올적합의 두만강유역 여진인에 대한 침입이 격화되었다. 10월 6일에 弓未車兀狹哈이 경원을 공격하였고, 訓春에 사는 올랑합의 집에 불을 놓아 1백여 채를 태웠으며,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갔다.²⁶⁾ 따라서 성종은 두만강유역의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는 대신

22) 두만강유역의 5진에 거주하는 올랑합·골간올적합·알타리·토착여진과 내지의 올적합 사이의 투쟁은 그 연원이 오래되었다. 특히 세조대에 이들의 투쟁이 격화되었는데 세조는 신속주를 파견하여 이들의 화해를 적극 성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한성주, 2012, 『조선 세조대 ‘女眞和解事’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38)

23) 이 기간 두만강유역 여진인의 내조 양상을 보면, 올적합의 약탈에 文果乙大와 같이 맞서 싸우거나, 執介처럼 적변을 보고하는 등 공을 세운 자도 포상으로 내조를 수용하였다. 『성종실록』 권 36, 4년 11월 5일 임진 ; 17일 갑진)

24) 이후에도 니마차올적합은 계속하여 5진에 거주하는 올랑합과 알타리, 골간올적합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경차관 이덕승을 보내 5진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을 존무하였고, 이들의 침입은 우리의 번리를 철폐하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성종실록』 권 36, 4년 11월 3일 경인 ; 9일 병신 ; 12일 기해 ; 24일 신해) 또한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영안북도 절도사와 관찰사에게 이들을 존무하여 魚鹽과 良布를 헤아려 주며, 곡진히 구휼하여 생업에 종사하도록 유지하였다. 『성종실록』 권 36, 4년 11월 9일 병신 ; 24일 신해)

25) <별표> 참조.

적극적으로 양자의 화해를 주도하였다. 먼저 올랑합 중추 柳於麟介를 인견한 자리에서 올적합과 화해를 종용하였다.²⁷⁾ 성종은 구주의 제종올적합에게도 화해하도록 유시하였고, 영안북도 절도사에게 이들에 대한公私무역도 엄금하도록 조치하였다.²⁸⁾ 이후 양자 간의 충돌은 비교적 감소하며 두만강 유역의 여진관계는 안정되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은 내조를 이용하여 올랑합과 알타리, 골간올적합 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살피주는 ‘字小’와 일맥상통한다. 조선은 초기부터 여진인과 왜인에 대한 ‘자소’ 관념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여진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다.²⁹⁾ 즉 조선의 내조 수용은 국방의 안정뿐 아니라 번리의 구축, 그로 말미암은 조선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여진인의 내조가 증가하자 다시 부담을 느끼고, 여진인 내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³⁰⁾ 성종 5년(1474) 1월에 성종은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전례를 참고하여 여진인 내조의 恒式을 정하도록 명령하였다.³¹⁾ 이에 그해 9월에 어유소가 이제 運을 나누어 1년에 12운을 넘지 못하게 하고, 1운에 6, 7명을 넘지 못하게 하여, 8월부터 올려보내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원상들이 회의한 결과, 8월 그믐에 올려보내되 1개월에 2, 3운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였다.³²⁾ 즉 어유소의 의견을 기본으로, 시기만 약간 늦추어 상송하게 한 것이다. 이 의견은 당분간 지켜져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성종 6년부터 13년 사이의 여진인 내조는 11년만 제외

26) 『성종실록』 권 48, 5년 10월 19일 신축.

27) 『성종실록』 권 49, 5년 11월 29일 경진.

28) 『성종실록』 권 49, 5년 11월 30일 신사.

29) 河内良弘, 1974, 『朝鮮世祖の字小主義とその挫折』 『天理大學學報』 93 ; 한성주, 2009, 『朝鮮前期 ‘字小’에 대한 고찰 -對馬島 倭人 및 女眞 努力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3.

30) 특히 성종 4년에 조선이 번리라고 인식한 올랑합·골간올적합·알타리·토착여진 등의 내조자가 주를 이루어 총 23회로 성종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그 결과 성종 5년 1월 1일의 회례연에 왜인 13명이 참석한 것과 달리(柳)要時老 등 무려 96명이 참석하였다.(『성종실록』 권 38, 5년 1월 1일 정해)

31) 『성종실록』 권 38, 5년 1월 7일 계사.

32) 『성종실록』 권 47, 5년 9월 27일 기묘.

하고 대체로 이 규정과 일치하며 조선의 통제가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³³⁾

한편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 재위 중반에 특기할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조 6년(1460) 이후 한동안 단절되었던 건주삼위와의 통교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성종 14년(1483)부터 18년까지 건주삼위의 내조가 집중적으로 보인다.³⁴⁾ 조선은 세조 13년(1467)에 건주위를 정벌한 이후 한동안 건주삼위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그것은 성종 10년의 건주위 정벌로 표출되었다.³⁵⁾

성종대 조선과 건주삼위의 교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종 즉위 초년부터 건주삼위는 조선과 교섭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성종 3년 9월에 童阿叱哈가 건주삼위인 중 가장 먼저 내조하였다.³⁶⁾ 하지만 쉽게 양자의 관계가 재개되지 않다가 성종 13년경부터 양자의 교섭논의가 본격화되고, 성종 14년 1월 17일에 건주분위의 幹黑能 등이 조선에 내조하였다.³⁷⁾ 이후 건주분위 추장인 達罕의 아들 李巨右가 직접 내조하였고,³⁸⁾ 건주좌·우위도 본격적으로 내조하였다. 당시 우위의 추장은 羅下와 甫花土로 두 명이었는데, 조

33) 성종 11년은 16회로 다른 해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러나 <표 2>에서 보이듯이 성종 11년 12월은 7회로 다른 해에 비해 약간 많고, 성종 12년 1월의 여진인 내조는 1차레만 확인된다. 12년 1월에 올 인원들이 며칠 차이로 일찍 도착했을 개연성도 있다. 때문에 큰 범주에서 보면 성종 11년에 내조가 조금 많은 것은 특별히 많은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34) 성종대 건주위와 조선이 교섭을 맺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園田一龜, 1953, 앞의 책 ; 김순남, 2009b, 앞의 논문)

35) 건주위의 정벌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5번 참조. 한편 성종 10년의 건주위 정벌은 두만강유역 여진인의 내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벌 시기도 11월로 내조를 금지하기 너무 늦은 시기였고, 결정적으로 조선의 의지가 아닌 명의 청병 요청에 따랐기 때문에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내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계승범, 2006, 앞의 논문, 319~329쪽) 또한 조선은 전부터 압록강유역의 건주위와 두만강유역의 여진인 사이에 대한 인식부터가 달랐고, 그에 따른 정책도 달랐다. 따라서 이때의 건주위 정벌은 두만강유역의 여진인 내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벌 이후 여진인의 조선 내조는 비교적 안정을 보이고 있었다.

36) 『성종실록』 권 22, 3년 9월 18일 신해.

37) 『성종실록』 권 150, 14년 1월 17일 경술.

38) 『성종실록』 권 152, 14년 3월 14일 병오.

선은 이들의 사절도 모두 수용하였다. 그 결과 성종 15년부터 17년까지 해마다 건주분위와 좌위, 우위의 추장 2명이 각각 1회씩 총 4회의 내조가 보인다.³⁹⁾

성종은 건주삼위와 교섭 초기부터 이들의 내조를 수용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접대규정과 내조 횟수, 인원을 계속하여 조절했다.⁴⁰⁾ 이후 건주삼위가 내조 인원과 횟수의 확대를 요구하자 조선은 오히려 이들에 관한 내조 규정을 더 까다롭게 제정하였고, 그 시기까지 준수하도록 하였다.⁴¹⁾ 이러한 영향으로 이 기간 여진인의 침입도 감소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후 다시 양자 간에 관계가 악화되고,⁴²⁾ 조선은 건주삼위의 내조를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기간 두만강유역 여진인의 내조는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성종 14년에 두만강유역 여진인의 내조가 그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부령의 청암리에 거주하는 향화 여진인 중 일부가 蒲州와 下東良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을 쇄환하는 과정에서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이 공을 세운 것이다.⁴³⁾ 따라서 성종은 이들의 상경을 허락하여 이해의 여진인 내조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특별한 사례들을 제외하고 여진인의 내조는 성종 초년에 제정한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성종 22년(1491) 정월 12일에 울적함이 영안북도 조산보를 공격하여 조선의 백성과 가축을 노략질하고, 군사와 심지어 邊將까지 살해한 것이다. 그들은 군인 3명을 사살하고, 만호 및 군인 26명을 다치게 한 뒤, 남녀 7명과 말 5필, 소 11

39) 환권 17년에 3회, 18년에 1회가 보이는데, 17년은 건주분위의 1회, 건주우위의 2회로, 건주좌위의 내조가 없다. 그런데 성종 18년 1월 22일에 건주좌위의 내조가 있으므로 시기가 약간 늦을 뿐 성종 17년에 총 4회의 내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40) 『성종실록』 권 149, 13년 12월 19일 계미 ; 권 150, 13년 5월 26일 갑오 ; 권 152, 14년 3월 12일 갑진.

41) 『성종실록』 권 171, 15년 10월 3일 정사 ; 18일 임신.

4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園田一龜, 1953, 앞의 책 ; 河內良弘, 1989, 앞의 논문 ; 김순남, 2009b, 앞의 논문)

43) 『성종실록』 권 145, 13년 윤8월 14일 경진 ; 권 152, 14년 3월 19일 신해.

두를 노략질해 갔다. 경흥부사 나사중은 이 보고를 듣고 출동하여 강을 건너 적과 싸우다가 그와 군사 10여 명이 전사하였다.⁴⁴⁾

조선조정은 침입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조선을 침입했던 니마차울적합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2월부터 정벌을 계획했다.⁴⁵⁾ 성종은 4월에 정벌 시기를 동년 10월로 정하고, 영안도 관찰사 허종을 북정 도원수에, 사헌부 대사헌 이계동 및 영안북도 절도사 성준을 부원수로 임명하였다.⁴⁶⁾ 이후 10월 14일에 정벌을 단행하여, 11월 2일에 돌아왔다. 니마차울적합은 조선군의 정벌소식에 도주하여, 정벌의 성과는 미미했다.⁴⁷⁾

북정의 결과와 관계없이 조선의 니마차울적합 정벌은 당연히 여진인의 내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정벌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의 내조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성종 22년의 여진인 내조는 단지 3회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시의 북정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성저야인들이 적극 동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올랑합의 阿唵介(哈)은 조선의 향도가 되어 조선의 군사와 함께 체탐을 다녀오기도 했으며,⁴⁸⁾ 정벌에도 참전하였다. 정벌 다음 해인 성종 23년에 이들의 내조가 급증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벌에 참여했던 자들로 모두 성저야인이다.

이들은 조선군에 종군한다면 자신들의 원수인 니마차울적합에 복수할 수 있고, 포상도 기대할 수 있기에 적극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한편 조선은

44) 『성종실록』 권 249, 22년 정월 19일 병신.

45) 『성종실록』 권 250, 22년 2월 6일 임자.

46) 『성종실록』 권 250, 22년 4월 18일 계해 ; 27일 임신.

47) 북정 후 부원수 이계동은 여진인의 참수 9급과 궁시·韃服을 성종에게 바쳤다(『성종실록』 권 259, 22년 11월 15일 정해). 아마도 河內良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전리품의 전부일 것이다(1992, 앞의 책, 554쪽). 한편 니마차울적합의 마을 400여 호에 불을 질러 그들의 삶을 곤궁하게 하였다(『성종실록』 권 259, 22년 11월 10일 임오).

48) 『성종실록』 권 255, 22년 7월 22일 병신 ; 권 258, 22년 10월 17일 경신 ; 권 262, 23년 2월 27일 무진.

49) 세조 6년의 모원위 정벌에도 여진인들이 참전하여 조선에 내조하고, 관직 받은 사실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한성주, 2008, 앞의 논문 ; 박정민, 2010, 앞의 논문)

군사력의 강함을 보여 알타리와 같은 성저야인이 조선에 더 깊이 복종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⁵⁰⁾

성종 24년(1493)과 25년에도 정벌에 참여한 여진인이 주로 조선에 내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면 점차 여진인의 내조는 성저야인을 위주로 하고, 이들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이 강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선은 점차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자신의 번리로 구축해 나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종대 조선조정은 여진인의 내조를 흉년을 제외하고, 1년에 약 12~15회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로 성종대에 총 344회의 여진인 내조가 있었고, 연평균 약 13.8회였다.⁵¹⁾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일부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여진인 내조 횟수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세종대와 세조대에 특별한 사례들로 여진인 내조의 횟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과 대비된다. 따라서 성종대는 초반에 제정한 규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력별로 보면 <표 1>과 같이 올랑합이 161회로 전체의 약 46.8%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세종울적합, 알타리, 건주삼위, 토착여진이 차지한다. 이 가운데 두만강유역에 거주한 올랑합과 알타리, 골간울적합과 토착여진이 총 267회로 약 77.6%를 차지한다. 조선은 이들을 자신의 번리라 생각하며 이들의 내조를 적극 수용했는데,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반면 압록강 이북에 거주하는 건주삼위와 온하위는 총 20회로 원만하지 않았던 양자의 관계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50) 『성종실록』 권 259, 22년 11월 10일 임오.

51) 태조대의 2.7회, 태종대의 4.2회에 비교하면 월등히 많지만, 세종대의 15.1회, 세조대의 18.7회에 비교하면 대략 비슷한 수치이다. 왕대별 수치는 다음의 연구에 근거하였다.(박정민, 앞의 논문, 2012 ; 앞의 논문, 2013)

3. 성종대 여진인 내조의 의미

전통시대 동아시아 사회는 중화인 ‘명’을 중심으로 구축된 질서 아래에서 조공·책봉체제에 의해 운영되었다.⁵²⁾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명의 질서 아래에 있는 조선이 주변국 혹은 세력과 외교를 맺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조선은 주변의 여진·일본·유구 등과 계속 외교를 맺었고, 심지어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질서에 편입하고자 하였다.⁵³⁾

조선의 주변 국가 혹은 세력은 조선의 질서를 인정하며, 조선에 토산물을 바쳤는데, 이에 조선은 회사품과 함께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러한 점은 중화의 천자가 주변의 제국에 행하는 조공·책봉과 같은 원리이다.⁵⁴⁾ 즉 조선은 조공·책봉을 주변의 국가 혹은 세력에게 적용하여 명 중심의 질서에서 다시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⁵⁵⁾

사실 고려 전기에도 여진인은 고려에 빈번하게 내조하였다.⁵⁶⁾ 조선은 이러한 전통 위에 태조 이성계와 동북면 여진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기반으로, 여진으로부터 ‘사대’를 이끌어 냈다.⁵⁷⁾ 따라서 여진인은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빈번하게 고려와 조선에 내조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명 永樂帝의 등장으로 변화하였다. 영락제는 여진인을 적

52)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26~58쪽 ; 권선홍, 2004,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68~69쪽 ; 김한규, 2005, 『천하국가』, 소나무, 31쪽.

53)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일일이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 조선이 일본과 유구에 대해 조선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려 했다는 Kenneth R. Robinson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2000, 「Centering the King of Chosŏn : Aspects of Korean Maritime Diplomacy, 1392~1592」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

54)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II, 아르케, 598~603쪽.

55) 이 질서에 대해서는 정다함, 2008, 앞의 논문, 각주 79번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필자도 이에 동조한다.

56) 고려시대 여진인이 내조한 것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박옥걸, 1996, 『고려시대 귀화인 연구』, 국학자료원, 180쪽) 한편 고려는 八關會에서 송의 상인과 후수말갈, 여진, 일본 등의 외국 상인들의 방물을 헌상받고, 回賜하였다. 奥村周司는 이를 중국의 전통적인 조공질서에 대응하는 고려의 주체적인 외교인 ‘팔관회적 질서’라고 규정하였다.(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の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朝鮮史研究會)

57) 정다함, 2008, 앞의 논문, 245~253쪽.

극 초무하여 조선의 동북면에 거주하는 童猛哥帖木兒와 劉把兒遜 등의 조공을 받으며, 이 지역 여진인이 명에 내조하는 실마리를 열었다. 이후 태종은 여진 정벌 등을 통해 이 지역 여진인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며 전보다 더 많은 내조를 수용하였다. 이처럼 여진인은 명과 조선에 모두 속하는 양상을 보인다.⁵⁸⁾

그렇다면 명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명은 건주위와 조선의 왕래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했다. 반면 두만강유역의 여진인이 조선에 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세조 6년에 조선이 모련위 추장 浪孛兒罕을 살해한 사건으로 조선과 명 사이에 외교 분쟁이 발생했다. 명은 낭발아한이 명의 관직을 받았음에도 조선이 명에 奏聞하지 않고, 마음대로 주살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선은 그가 조선의 編氓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조선은 칙지를 받아들여 여진인과 화해하겠다고 이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⁵⁹⁾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후인 8월에 명의 사신으로 온 馬鑑이 이극배에게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성저야인은 조선의 번리라고 인정하며, 이들을 잘 어루만져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⁶⁰⁾ 갑자기 명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시기 이루어진 조선의 모련위 정벌에 대해서 명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명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에 대한 영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했음을 보여준다.⁶¹⁾ 따라서 조선은 건주위를 제외한 다른 여진인이 내조하면 수용하였고, 명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⁶²⁾

58) 박정민, 2013, 앞의 논문. 한편 여진인이 명과 조선에 양속된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전혜중, 1984, 「조선전기 한중관계의 몇가지 특징적인 문제」, 『동양학』 14, 523~525쪽; 한성주, 2007, 「조선초기 조·명 이중수적여진인의 양속문제」, 『조선시대사학보』)

59) 한성주, 2008, 앞의 논문, 94~99쪽; 이규철, 2012, 「세조대 모련위 정벌의 의미와 대명의 식」, 『한국사연구』 158, 135~143쪽.

60) 『세조실록』 권21, 6년 8월 13일 병진.

61) 정다함, 2008, 앞의 논문, 255~256쪽.

62) 물론 건주위의 내조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건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원

조선에 내조한 세력은 대부분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올랑합과 알타리, 골간올적합, 토착여진인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명에도 조공을 바쳤다. 명은 여진의 세력을 크게 建州女眞, 海西女眞, 野人女眞으로 구별하였다. 그 중 건주여진은 건주삼위를 비롯하여 모련위까지 포함한다.⁶³⁾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올랑합이 바로 모련위로 이들은 명의 건주여진에 해당한다. 한편 골간올적합은 喜樂溫河衛(希刺溫衛)로 불리었다.⁶⁴⁾

성종대 26회에 걸쳐 조선에 내조한 火刺溫兀狄哈는 해서여진에 해당한다.⁶⁵⁾ 해서여진의 거주지는 지금의 길림성 중북부지대와 흑룡강성 남부 일대이다.⁶⁶⁾ 니마차올적합은 명대에 阿速江衛로 불리었으며 야인여진에 해당한다.⁶⁷⁾ 그들은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일대에 거주하며 성종대 22회에 걸쳐 조선에 내조하였다. 하지만 니마차는 자주 조선과 5진의 성저야인을 공격하여, 성종 23년에 조선의 정벌을 당하였다. 이처럼 명의 해서여진과 야인여진에 속하는 여진인도 상당한 횡수로 조선에 내조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⁶⁸⁾

조선과 명에 양속하는 양상을 보인 여진인이 명에 조공하면 다른 조공사신들과 같이 명의 접대예를 따라야 했다. 여진인 사절이 북경에 도착하면 禮部 主客司의 관원인 員外郎과 主事가 會同館에서 방물을 검사하였고, 출입을 제한하였다.⁶⁹⁾ 여진인 사절은 그 관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며 회동

한 것으로 조선이 주도적으로 이들의 내조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63) 萬曆『大明會典』卷 107, 禮部 65, 東北夷.

64) 골간올적합이 명에 입조하여 위를 개설 받는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김구진, 1976, 「골간 올적합 연구」, 『사총』 20, 215~218쪽)

65) 조선은 원래 이들을 홀라온올적합으로 이해했는데, 세조대부터 화라온으로 기재되었다.

66) 楊暘, 2008, 『明代東北疆域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55~268쪽.

67) 河內良弘, 1978, 「阿速江衛について」, 『內田吟風博士頌壽記念東洋論集』.

68) 김구진, 『13C~17C女眞 社會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92~99쪽. 그는 이 논문에서 명의 여진위소 184위 중 79위가 조선에 내조하였고, 이는 전체의 약 48%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 중 60여 위가 세종대에 내조한 홀라온올적합으로 성종대에는 당시 보다 홀라온(화라온)의 내조가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속강위(니마차)와 희락온하위(골간) 등은 조선에 내조하였다.

69) 萬曆『大明會典』卷 109, 禮部 67, 賓客, 會同館.

관에서 숙식을 받았다. 또한, 正日·聖節·冬至 등의 의식에 참석한 이후 恒例에 따라 賜宴과 회사품을 받았다.⁷⁰⁾ 그리고 여진인 사절은 회동관에서 3일에서 5일에 걸친 개시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⁷¹⁾

또한 명은 여진인의 조공 인원과 시기, 공물 등도 법제화하였다. 먼저, 인원을 살펴보면 건주위는 건주삼위와 모련위는 위마다 매년 100명으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시기는 매년 10월 초부터 12월로 한정했고, 만일 1월 이후에 도착하는 자는 邊臣이奏를 올린 후 허락을 받도록 했다.⁷²⁾ 이처럼 명은 여진인의 조공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이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정 가운데 여진인의 내조 시기를 정한 것이 특히 주목된다. 이것은 이들을 正日의 조하에 참석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洪熙 元年(1425) 12월에 建州衛의 李滿住 등이 貢馬 및 方物을 바쳤고, 이들을 비롯한 遠夷가 정단 조회에 참여하였다.⁷³⁾ 이처럼 원회의례는 명의 관료 뿐만 아니라 이민족도 참여하여 양자의 정치적 종속관계를 재형성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⁷⁴⁾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도 명과 상당히 비슷한 형식으로 이들의 내조를 수용하였다. 특히 『大明會典』, 『大明集禮』 등에서 여진인을 비롯한 주변제

70) 萬曆 『大明會典』 卷 111, 禮部 69, 給賜 1, 外夷上 ; 卷 113, 禮部 71, 給賜 4, 給賜番夷通例 ; 卷 114, 禮部 72, 膳羞1.

71) 萬曆 『大明會典』 卷 108, 禮部 66, 朝貢 4, 朝貢通例. 조선 역시 여진인이 상경하면 보통 북평관에 머무르며 조선의 제 규정에 따르게 했다. 이후 여진인이 국왕에게 도산물을 바치고 肅拜하면, 국왕은 보통 내조자의 관직, 원거주지에서의 세력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관직과 회사품을 내렸다. 한편 이들은 북평관에서 조선인과 교역을 하며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이인영, 1937, 『鮮初女眞貿易考』, 『진단학보』 8 ; 河內良弘, 1983, 『李朝時代女眞人の朝鮮入京について』, 『天理大學學報』 138) 이러한 점은 명이 여진인을 비롯한 주변국에 행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72) 萬曆 『大明會典』 卷 107, 禮部 65, 東北夷. 천순 8년에 건주위·건주좌위·건주우위·모련위 등 각위는 100명, 해서여진은 각위 35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였다.(『明英宗實錄』 권 10, 天順 8年 10月 己巳) 아마 『大明會典』에 실린 여진인 내조 인원의 제한은 천순 연간에 제정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73) 『明宣宗實錄』 卷 12, 洪熙 元年 12月 甲午.

74) 渡辺信一郎 著/문정희·임대희 공역, 2007, 『천공의 옥좌』, 신서원, 197~198쪽.

국 사절들의 접대 내용을 규정한 것처럼 조선 역시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등을 통해 주변 국가 혹은 세력에 대한 접대 제 규정을 마련하였다. 물론 명의 『대명회전』보다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의 내용이 간략하지만, 필자는 바로 이러한 조공제도를 법전에까지 규정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⁷⁵⁾

『經國大典』禮典에 의하면 朝儀에 正朝과 冬至, 聖節과 春秋節에 조선의 국왕은 명의 황제를 향해 망궐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정조와 동지, 매달 초하루와 보름, 국왕과 왕비의 생일에는 세자 이하 모든 관리가 朝賀하였다.⁷⁶⁾ 그 중 정조와 동지, 탄일은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 이때 조선의 관리뿐만 아니라 여진인과 왜인도 여기에 참여했다. 여진인은 조선 건국 이듬해인 태조 2년의 정조하례부터 참석하였고,⁷⁷⁾ 이후에도 왜인이나 유구보다 더 많이 정조와 동지의 행사에 참가하였다.

조선의 국왕이 명의 황제에게 망궐례를 행한다는 것은 명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망궐례 이후 조선의 신료들뿐만 아니라 주변 제국에도 조회를 받음으로써 왕권을 드러내고, 그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신료들도 조회의 참석과 행례는 관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는데,⁷⁸⁾ 바로 이 자리에 여진인과 왜인도 참석하는 것은 그들 역시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들의 내조 목적이 경제적이었음에도,⁷⁹⁾ 조선의 의례를 준용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시각에서는 조선이

75) 명의 『大明會典』, 『大明集禮』, 『外夷朝貢考』 등과 조선의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등에 보이는 차이점과 특색은 후일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76) 『經國大典』禮典.

77) 『태조실록』 권3, 2년 1월 1일 정미.

78) 강제훈, 2007, 「조선 성종대 朝會儀式과 朝會 운영」, 『한국사학보』 27, 74~77쪽.

79) 이인영, 1937, 「鮮初女眞貿易考」, 『신단학보』 8 ; 이현희, 1982, 「對女眞貿易—對野人 交涉政策의 背景」, 『韓國史論』 11 ; 王臻, 2002, 「明代女眞族與朝鮮的邊貿考述」,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01期 ; 刁書仁, 2007, 「明代女眞與朝鮮的貿易」, 『史學集刊』 03期 ; 樂凡, 2007, 「明朝對中國朝貢的組織管理及其影響」, 『西南大學學報』 33-5.

여진인과 왜인의 내조를 수용한 것은 국방의 안정을 위해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조선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상정하고, 이들을 여기에 순응하게 한다면 조선 국왕의 위상과 권위는 현격히 높아질 수 있다.

조선 역시 조공·책봉을 근간으로 중국의 천자에게 조공하는 사대의 예를 여진과 일본·유구에 그대로 적용하여,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관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즉 중화인 명의 조공제도를 준용하여 명에 사대하는 원칙을 지키되, 다시 여진 등 주변 세력의 내조를 수용하여 명 중심의 세계에서 다시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체제를 구현하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여진인의 내조 수용 태도와 조선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명은 여진인의 내조 시기를 제한하고, 이들을 원회의례에 참석하게 하였다. 흥미롭게도 성종 이전의 여진인 내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11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특히 12월과 1월에 내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정조하례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⁸⁰⁾

성종대는 아니지만, 연산군 3년 2월에 阿堂介가 종성의 맞은편에 거주하려는 문제로 대신들이 논의하였는데, 이때 윤필상 등이 “...(상략)...접대하는 일과 세시(歲次)에 와서 조회하는 것은 성저야인의 예와 같이하고”라는 구절이 주목된다.⁸¹⁾ 이는 성저야인이 세시, 즉 정조에 와서 조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종대에도 5진에 거주하는 성저야인이 정조에 내조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들의 내조를 월별로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80) 1월 1일에 여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1월에 내조하는 것은 국왕에게 正朝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태종실록』 권11, 6년 1월 21일 임자

81) 『연산군일기』 권21, 3년 2월 29일 신축.

〈표 2〉 성종대 내조 여진인 월별 분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즉위												9	9
성종 1	1				1						2	18	22
성종 2	1	1									3	8	13
성종 3	4								1	1	4	8	18
성종 4		2								7	8	6	23
성종 5	3	1						1	3	6	2	5	21
성종 6	1								1	5	4	2	13
성종 7	3	1								2	3	2	11
성종 8	1										4	4	9
성종 9	2							1				4	7
성종 10	4	2										6	12
성종 11	4									2	3	7	16
성종 12	1										4	1	6
성종 13											4	3	7
성종 14	1		1	1					3		6	6	18
성종 15	1	1			1	1					2	5	11
성종 16	6	5	1	1						1	3	3	20
성종 17	1										2	6	9
성종 18	5	1											6
성종 19	5	4									1	5	15
성종 20	4	1									3	7	15
성종 21	2	2									4	5	13
성종 22	3												3
성종 23	3	5	2								5	5	20
성종 24	3	1									3	6	13
성종 25	4	2						1			3	4	14
합계	63	29	4	2	2	1	0	3	8	24	73	135	344

〈표 2〉를 보면 12월이 135회로 전체의 약 39.2%로 가장 많고, 11월에 73회, 1월에 63회, 2월에 29회, 10월에 24회로 뒤를 잇는다. 특히 1, 11, 12

월에 이들의 내조는 275회로 전체의 약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진인의 내조가 이 시기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범위를 넓혀 2월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의 88.3%로, 태종대의 77.9%, 세종대의 69.1%, 세조대의 65%에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⁸²⁾ 즉 성종대 여진인이 내조하여 정조와 동지의 하례의 참석하는 비율이 그 이전보다 높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의례의 완비와 이들의 내조가 그 궤적을 같이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통제도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시기 즉 3월부터 10월의 내조는 여진인에 대한 조선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종 3년에 여진인들의 내조를 분산하기 위해 9월부터 이들의 내조를 수용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성종 3년부터 성종 7년까지 이루어진 9월과 10월의 내조는 조선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기간에 내조한 자들은 대부분 올랑합과 알타리, 골간올적합으로 조선의 통제에 잘 따랐다. 따라서 이 기간의 내조 27회를 제외하면 그 예외적 사례도 급감한다.

<표 3> 여진 세력별 월별 내조 분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올랑합	27	11	3			1		1	3	14	44	57	161
알타리	19	4		2	2			1		4	12	16	60
건주삼위	3		1			1			4		4	6	19
토착여진	2									1	2	13	18
골간올적합	2	2							1	3	6	15	29
화리온올적합	3	6									2	15	26
니마차올적합	4	5								1	2	10	22
남늘올적합	1	1										2	4
올적합	1									1	1	1	4
온하위								1					1
합계	62	29	4	2	2	2	0	3	8	24	73	135	344

82) 박정민, 2012, 앞의 논문 ; 2013, 앞의 논문 ; 2013, 앞의 발표문.

<표 3>처럼 건주삼위의 내조 19회 가운데, 6회가 3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은 건주삼위와 두만강유역의 여진인에 대한 대응이 달랐다. 이를 보면 건주삼위의 내조가 3월부터 10월의 사이에도 보이는 것은 교섭 초기 이들의 귀순을 우선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조선은 그 시기에 상관없이 이들의 내조를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조선은 이들에 대한 횡수, 사송인 등을 제한하면서 그 시기도 11, 12, 1월로 유도하였다. 즉 점차 조선의 질서를 준수하도록 종용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렇다면 3월부터 10월 사이의 내조 40회 가운데 조선이 의도적으로 허가한 사례는 34회에 이른다. 따라서 조선은 여진인의 내조 시기를 잘 통제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성종 17년을 기점으로 예외적 사례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종 23년 3월에 2회가 보이는데 이들은 성종 22년 북정에 참전한 자들로 그 공이 현저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종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3월부터 6월 사이의 내조 역시 조선에서 허가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은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서 명이 주변 국가와 세력에게 시행한 조공책봉을 준용하였다. 조선은 정조와 동지에 명의 황제에게 망궤례를 행한 이후 신료들과 여진인과 왜인 등 주변국 사절로부터 조하를 받았다. 그리고 여진인은 정조하례에 참석하기 위해 이 기간에 내조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점은 성종대 여진인의 월별 내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월, 2월, 11월, 12월에 내조하는 여진인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성종대 여진인 내조의 현황을 그 시간의 추이 과정과 세력별,

월별 등으로 분석하여 조선이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한 의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성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정희왕후와 원상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여진정책은 세조대부터 정책을 입안했던 신숙주, 한명회 등의 원상들에 의해 운용되었다. 따라서 성종대 역시 조선 초부터 계속된 강온양면책을 기반으로 여진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회유책의 하나인 내조는 성종대에도 적극 추진되었는데, 조선은 역로의 피폐 등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다. 따라서 성종은 재위 초반 여진인 내조에 대해 각종 규정을 제정하였고, 恒式, 즉 1년에 수용하는 여진인의 내조 횟수 및 인원을 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이전의 왕들과 비교하면 잘 지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벌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종이나 세조대처럼 여진인의 내조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았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은 이전과 같이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내조를 적극 수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들을 藩籬 혹은 藩屏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⁸³⁾

당시 조선은 중화인 명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가장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은 자신이 명에 행하는 조공책봉의 원리를 주변국 혹은 세력에게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즉 명의 질서 안에서 다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은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접대규정 및 내조 시기 등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및 시기 등은 명이 여진인에게 행한 것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

83) 조선전기 두만강유역의 여진인을 藩籬·藩胡로 구축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성격 등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정다함, 2008, 앞의 논문;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 유역 ‘女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김순남, 2011, 『조선전기 5진 藩胡 동향의 추이』 『역사와 실학』 46)

특히 여진인의 내조 시기가 11월, 12월, 1월, 2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여진인이 동지와 정조의 하례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은 정조, 동지, 성절과 춘추절 등에 명 황제를 향해 망궐례를 행하고, 신하들로부터 조하를 받았다. 이때 조선의 신료뿐만 아니라 여진인과 왜인들도 참석한 것이다. 즉 명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자신의 질서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종대는 각종 제도와 의례의 완비와 맞물려 여진인의 내조 횟수, 인원, 시기 등을 재정비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선대왕들과 달리 여진인의 내조를 규정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후에 즉위하는 왕들에게 영향을 미쳐 여진인 내조를 수용하는 전범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종은 안정적인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역동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했다고 생각한다.

〈별표〉 성종대 女真人 來朝 목록

연번	연월일	종족	성명	사례	비고
1	즉위년 12월 7일 병진	兀良哈	都萬戶 劉阿赤介 等 8人	來獻土宜	
2		女眞	僉知 金之下里 等 9人	來獻土宜	
3	즉위년 12월 9일 무오	兀良哈	同知中樞 林時乙豆 等 10人	來獻土宜	
4	즉위년 12월 16일 을축	南訥兀狄哈	司直 回伊波 等 5人	來獻土宜	
5	즉위년 12월 18일 정묘	兀良哈	中樞 柳要時好(老) 等 7人	來獻土宜	
6		火刺溫兀狄哈	護軍 者里 等 2人		
7	즉위년 12월 19일 무진	斡朶里	(僉知中樞院事) 文果(加)乙太(太,巨) 等 6人	來朝寓館	
8	즉위년 12월 26일 정축	(尼麻車) 兀狄哈	中樞 筍里 等 12人	來獻土宜	
9	즉위년 12월 30일 기묘	嫌眞(骨看) 兀狄哈	上護軍 金乞都革 等 8人	來獻土宜	
10	1년 1월 2일 신사	兀良哈	豆未應巨 等 9人	來獻土物	
11	1년 5월 27일 갑진	斡朶里	都萬戶 李阿尹多可 等 3人	來獻土宜	
12	1년 11월 14일 무자	兀良哈	指揮 阿(乙)豆(吐) 等 16人	來獻土宜	
13	1년 11월 24일 무술	兀良哈	中樞 柳於嚴可 等 10人	來獻土宜	
14	1년 12월 1일 갑진	(尼麻車) 兀狄哈	(都萬戶) 澄乃 等	獻土宜	11.14중복
		兀良哈	阿乙豆(吐) 等		
15	1년 12월 6일 기유	兀良哈	李多乙非 等 18人	來獻土宜	
16	1년 12월 11일 갑인	兀良哈	僉知 時時介(哈) 等 7人	來獻土宜	
17	1년 12월 14일 정사	骨看兀狄哈	僉知 金進巨應阿 等 7人	來獻土宜	
18		兀狄哈	司猛 阿乙吐下 等 7人	來獻土宜	
19	1년 12월 18일 신유	骨看兀狄哈	中樞 李多弄介 等 11人	來獻土宜	
20	1년 12월 19일 이전	火刺溫兀狄哈	沙乙古大 等 9人	인견, 물품하사	12.14중복
21		(火刺溫兀狄哈)	(中樞府同知事) 阿充介(哈) 等 4人		
22		骨看兀狄哈	(中樞府知事) 金麻(馬)尙哈 等 6人		
		骨看兀狄哈	金進巨應阿 等 7人		
23	1년 12월 20일 계해	斡朶里	中樞 李加(家)紅 等 9人	來獻土宜	
24	1년 12월 21일 갑자	兀良哈	都邑道 等 7人	물품하사	
25		(女眞)	朴撒塔木 等 7人		

26		幹朶里	馬加無羅 等 8人		
		兀良哈	時時介(哈) 等 7人		12.11 중복
27	1년 12월 22일 을축	兀良哈	(司正) 南介 等 7人	來獻土宜	
28		女眞	(副護軍) 金筈秃 等 6人		
29	1년 12월 23일 병인	尼麻車兀狄哈	(上護軍) 也堂只(其) 等	來獻土宜	
30	1년 12월 25일 무진	骨看兀狄哈	(中樞府僉知事) 李多陽介 等 7人	來獻土宜	
31	2년 1월 1일 갑술	(兀良哈)	(中樞) 金波乙大	회례연 참석	
32	2년 1월 14일 정해	幹朶里	(都萬戶) 浪都郎可(哈)	수직	
33	2년 2월 21일 갑자	(尼麻車)兀狄哈	中樞 金丐豆 等 6人	來獻土宜	
34	2년 11월 23일 신유	兀狄哈(兀良哈)	(僉知) 都邑道 等 7人	來獻土宜	
35	2년 11월 29일 정묘	火刺溫兀狄哈	中樞 阿充介 等 4人	來獻土宜	
36		骨看兀狄哈	中樞 金麻尙哈 等 6人		
37	2년 12월 3일 경오	女眞	護軍 朴撒塔木	來獻土宜	
38		幹朶里	馬加無羅 等 15人	來獻土宜	
39	2년 12월 11일 무인	兀良哈	僉知 時時哈 等 7人	來獻土宜	
40	2년 12월 14일 신사	骨看兀狄哈	中樞 金進巨應阿 等 7人	來獻土宜	
41	2년 12월 18일 을유	兀良哈	(中樞府僉知事) 阿乙吐(豆) 等 7人	來獻土宜	
42	2년 12월 20일 정해	兀良哈	金多良哈 等 8人	來獻土宜	
43	2년 12월 22일 기축	女眞	護軍 金筈秃 等 13人	來獻土宜	
44	2년 12월 25일 임진	骨看兀狄哈	僉知 李多陽哈 等 7人	來獻土宜	
45	3년 1월 5일 임인	兀良哈	多大 等 15人	來獻土宜	
46	3년 1월 7일 갑진	骨看兀狄哈	金爾哈塔 等 7人	來獻土宜	
47	3년 1월 17일 갑인	幹朶里	忘子 等 8人	來獻土宜	
48	3년 1월 25일 임술	幹朶里	(副萬戶) 童者吐(土) 等 8人	來獻土宜	
49	3년 9월 18일 신해	건주위	童阿亡哈(伊忘哈) 等 8人	來獻土宜	동청주의 아우, 동청례의 형
50	3년 10월 24일 정해	兀良哈	中樞 劉阿赤介 等 9人	來獻土宜	
51	3년 11월 4일 병신	兀良哈	中樞 金阿羅哈 等 8人	來朝	
52	3년 11월 10일 임인	骨看兀狄哈	中樞 李都弄吾 等 7人	來朝	

53	3년 11월 19일 신해	幹朶里	護軍 金昌巨 等 8人	來朝	
54	3년 11월 29일 신유	骨看兀狄哈	都萬戶 李小通阿 等 7人	來朝	
55	3년 12월 1일 계해	兀良哈	中樞 豆升巨 等 9	來獻土宜	
56	3년 12월 4일 병인	兀良哈	(都萬戶) 金波乙多尙 等 8人	來獻土宜	
57	3년 12월 8일 경오	兀良哈	護軍 金羅果 等 8人	來朝	
58	3년 12월 11일 계유	火刺溫兀狄哈	萬戶 洪多伊哈 等 7人	來獻土宜	
59	3년 12월 14일 병자	兀良哈	上護軍 舍吾大 等 9人	來朝	
60	3년 12월 17일 기묘	火刺溫兀狄哈	中樞 軍有 等 13人	來獻土宜	
61	3년 12월 24일 병술	幹朶里	萬戶 童尙時 等 8人	來獻土宜	
62	3년 12월 27일 기축	火刺溫兀狄哈	中樞 者里 等 6人	來朝	
63	4년 2월 11일 임신	兀良哈	甫多時 等 7人	來獻土宜	
64	4년 2월 18일 기묘	幹朶里	僉知 亦失哈 等 5人	來朝	
65	4년 10월 10일 무진	幹朶里	僉知 文果乙大	來獻土宜	11.17授四品職
66		兀良哈	執介		
67		女眞	都萬戶 金之下里		
68		(兀良哈)	僉知 馬巨車 等 32人		
69	4년 10월 22일 경진	骨看兀狄哈	上護軍 劉甫澄哈	來獻土宜	
70		幹朶里	中樞 李家紅 等 19人		
71	4년 10월 25일 계미	兀良哈	指揮僉使 柳的米哈 等 9人	來獻土宜	
72	4년 11월 4일 신묘	女眞	都萬戶 朴也郎哈 等 9人	來獻土宜	
73	4년 11월 10일 정유	骨看兀狄哈	中樞 劉無澄哈 等 8人	來朝	
74	4년 11월 13일 경자	兀良哈	司猛 軍伊 等 9人	來獻土宜	
75	4년 11월 16일 계묘	幹朶里	中樞 馬多弄哈(可) 等 10人	來朝	
76	4년 11월 18일 을사	兀良哈	護軍 金何時介 等 10人	來朝	
77	4년 11월 22일 기유	兀良哈	都萬戶 李打兒非 等 9人	來獻土宜	
78	4년 11월 24일 신해	兀良哈	大護軍 卓時 等 8人	來獻土宜	
79	4년 11월 26일 계축	兀良哈	司正 者乙道 等 10人	來朝	
80	4년 12월 1일 정사	骨看兀狄哈	上護軍 李阿時阿 等 8人	來獻土宜	
81	4년 12월 6일 임술	幹朶里	都萬戶 馬千里 等 18人	來獻土宜	
82	4년 12월 19일 을해	(火刺溫)兀狄哈	中樞 照麟可 等 13人	來獻土宜	
83	4년 12월 27일 계미	(火刺溫)兀狄哈	僉知 將其大(將只大) 護軍 伊澄介	來獻土宜	

			副萬戶 加雄巨 等 20人		
84	4년 12월 30일 병술	(尼麻車)兀狄哈	中樞 金芍豆 等 9人	來朝	
85	5년 1월 1일 정해	兀良哈	(知中樞院事) (柳)要時老	入參	
86	5년 1월 11일 정유	韓朶里	副萬戶 伊里可 等 11人	來獻土宜	
87	5년 1월 13일 기해	兀狄哈	司猛 加應只乃 等 2人	來獻土宜	
88	5년 1월 23일 기유	韓朶里(건주좌위)	李巨羅茂 等 6人	來獻土宜	
89	5년 2월 9일 갑자	(尼麻車)兀狄哈	中樞 阿仁加慕(茂,民) 等 24人	來獻土宜	
90	5년 8월 30일 임자	韓朶里	中樞 馬仇音波 等 7人	來獻土宜	
91	5년 9월 10일 임술	兀良哈	僉知 都邑道 等 7人	來朝	
92	5년 9월 15일 정묘	兀良哈	大護軍 都塔哈 等 7人	來朝	
93	5년 9월 20일 임신	骨看兀狄哈	都萬戶 金木(尙)哈 等 7人	來獻土宜	
94	5년 10월 4일 병술	兀良哈	司正 松古老 等 6人	來獻土宜	
95	5년 10월 8일 경인	兀良哈	中樞 柳尙同介	來獻土宜	
96	5년 10월 10일 임진	兀良哈	中樞 (劉)阿赤介	來獻土宜	
97	5년 10월 14일 병신	兀良哈	大護軍 哈散哈 等 7人	來獻土宜	
98	5년 10월 20일 임인	骨看兀狄哈	都萬戶 金阿刺 等 7人	來獻土宜	
99	5년 10월 29일 신해	兀良哈	中樞 權豆 等 7人(회령)	來獻土宜	
100	5년 11월 5일 병진	兀良哈	(中樞) (柳)於麟可 等 22人	헌토의	
	5년 11월 12일 계해	兀良哈	劉阿稱介, 哈撒哈 等 22人		10.10; 10.14 중복
101	5년 11월 13일 갑자	尼麻車兀狄哈	僉知 也堂其(只) 等 9人	來獻土宜	
	5년 11월 29일 경진	兀良哈	中樞 柳於麟介 等 22人		11.5중복
102	5년 12월 1일 임오	火刺溫兀狄哈	指揮 創加 等 9人	來獻土宜	
103	5년 12월 9일 경인	尼麻車兀狄哈	(萬戶) 八里 等 11人	來獻土宜	
104	5년 12월 11일 임진	兀良哈	僉知 阿乙豆 等 7人	來獻土宜	
105	5년 12월 12일 계사	尼麻車兀狄哈	(中樞院副使) 箭里 等 4人	來獻土宜	
106	5년 12월 21일 임인	火刺溫兀狄哈	僉知 沙乙古大 等 12人	來獻土宜	
107	6년 6월 26일 정유	兀良哈	都萬戶 金波乙多尙	來獻土宜	
108	6년 9월 24일 경오	兀良哈	中樞 馬金波老 等 7人	來朝	

109	6년 10월 3일 기묘	兀良哈	都萬戶 時時哈 等 7人	來獻土物	
110	6년 10월 9일 을유	(尼麻車)兀狄哈	上護軍 其當可	來獻土宜	
111		兀良哈	司猛 所古 等 7人		
112	6년 10월 17일 계사	兀良哈	中樞 元好時乃 等 7人	來獻土宜	
113	6년 10월 27일 계묘	骨看兀狄哈	中樞 李多弄介 等 8人	來獻土宜	
114	6년 11월 1일 병오	火刺溫兀狄哈	(都萬戶) 阿充哈(介) 等 7人	來獻土宜	
115	6년 11월 11일 병진	斡朶里	都萬戶 童速時 等 7人	來獻土宜	
116	6년 11월 15일 경신	兀狄哈	下稱介 等 7人	來獻土宜	
117	6년 11월 21일 병인	(尼麻車)兀狄哈	僉知 阿乙愁 等 7	來獻土宜	
118	6년 12월 1일 병자	骨看兀狄哈	(中樞) 金麻尙哈 等 7人	來獻土宜	
119	6년 12월 21일 병신	(南訥)兀狄哈	副萬戶 回伊波 等 3人	來獻土宜	
120	7년 1월 15일 경신	斡朶里	中樞 馬游德 等 7人	來獻土宜	
121		兀良哈	僉知 毛伊乃 等 7人	來獻土宜	
122	7년 1월 26일 신미	斡朶里	都指揮 馬申哈, 加乙多時 等 3人	來獻土宜	
123	7년 2월 1일 을해	斡朶里	指揮 阿哈出 等 11人	來獻土宜	
124	7년 10월 18일 무자	斡朶里	中樞 文加乙巨 等 7人	來獻土宜	
125	7년 10월 27일 정유	兀良哈	都指揮 使老童 等 8人	來獻土宜	
126	7년 11월 5일 을사	兀良哈	護軍 阿速 等 7人	來獻土宜	
127	7년 11월 14일 갑인	兀良哈	司果 阿羅 等 7人	來朝	
128	7년 11월 16일 병진	骨看兀狄哈	中樞 李小通哈 等 7人	來朝	
129	8년 1월 1일 경자	兀良哈	副萬戶 阿哈 等 10人	獻土宜	회례연 참여
130		兀良哈	中樞 金波(乙)多尙 等 11人		
131	8년 1월 19일 무오	(尼麻車)兀狄哈	中樞 阿仁加民(茂,募) 等 4人	來獻土宜	
132	8년 11월 5일 무진	兀良哈	(中樞) 柳要時老 等 8人	來獻土宜	
133	8년 11월 12일 을해	兀良哈	雄古小 等 8人	來獻土宜	
134	8년 11월 21일 갑신	兀良哈	(中樞) 金阿羅哈 等 8人	來獻土宜	
135	8년 11월 23일 병술	斡朶里	高崇禮	來獻土宜	
136	8년 12월 6일 기해	兀良哈	中樞 時加具 等 8人	來朝	
137	8년 12월 10일 계묘	兀良哈	都萬戶 舍吾大 等 8人	來獻土宜	
138	8년 12월 15일 무신	(火刺溫)兀	中樞 軍有 等 4人	來獻土宜	

		狄哈			
139	8년 12월 19일 입자	兀良哈	上護軍 永守 等 8人	來朝	
140	9년 1월 8일 신미	兀良哈	兪知 莽刺 等 8人	來朝	
141	9년 1월 16일 기묘	兀良哈	中樞 伊時乃 等 8人	來獻土宜	
142	9년 8월 23일 입자	兀良哈	萬戶 金波乙多尙	來獻土宜	
143	9년 12월 2일 기축	斡朶里	朴家老 等 6人	來獻土宜	
144	9년 12월 8일 을미	兀良哈	馬毛多赤 等 8人	來獻土宜	
145	9년 12월 10일 정유	兀良哈	中樞 柳尙同介 等 6人	來獻土宜	
146	9년 12월 16일 계묘	兀良哈	司果 金雙古大 等 6人	來獻土宜	
147	10년 1월 5일 임술	兀良哈	都萬戶 巨應仇乃 等 6人	來獻土宜	
148	10년 1월 10일 정묘	兀良哈	大護軍 達魯花哈 等 6人	來獻土宜	
149	10년 1월 16일 계유	女眞	中樞 朴也郎哈 等 6人	來獻土宜	
150	10년 1월 24일 신사	兀良哈	大護軍 金大豆麻 等 6人	來獻土宜	
151	10년 2월 4일 신묘	尼麻車兀狄哈	中樞 筭里 等 4人	來獻土宜	
152		兀良哈	中樞 浪時波 等 6人		
153	10년 12월 11일 임술	兀良哈	中樞 時時介 等 8人	來獻土宜	
154		兀良哈	護軍 金沙下禮 等 8人	來獻土宜	
155	10년 12월 16일 정묘	骨看兀狄哈	中樞 金木哈尙 等 8人	來獻土宜	
156	10년 12월 27일 무인	尼麻車兀狄哈	兪知 麻里 等 2人	來獻土宜	
157		兀良哈	司果 權羅 等 6人	來獻土宜	
158	10년 12월 29일 경진	女眞	兪知 金麻只乃 等 8人	來獻土宜	
159	11년 1월 15일 병신	斡朶里	中樞 童尙時 等 8人	來獻土宜	
160	11년 1월 17일 무술	斡朶里	都萬戶 果乙太(文果乙太) 等 8人	來獻土宜	
161	11년 1월 19일 경자	兀良哈	中樞 所衆介 等 8人	來獻土宜	
162	11년 1월 22일 갑진	斡朶里	中樞 李肖陽介 等 8人	來獻土宜	
163	11년 10월 20일 병인	兀狄哈	都可車	今來朝	
164	11년 10월 27일 계유	斡朶里	子加乙巨 等 7人	來獻土宜	
165	11년 11월 1일 정축	斡朶里(兀良哈)	中樞 舍吾大 等 7人	來獻土宜	
166	11년 11월 7일 계미	兀良哈	上護軍 阿速 等 6人	來獻土宜	
167	11년 11월 26일 임인	兀良哈	兪知 管禿 等 14人	來獻土宜	
168	11년 12월 2일 정미	兀良哈	司果 餘毛 等 7人	來獻土宜	
169	11년 12월 14일 기미	女眞	兪知中樞 銷里必 等 7人	來獻土宜	

170	11년 12월 19일 갑자	骨看兀狄哈	同知中樞 劉甫澄哈 等 7人	來獻土宜	
171	11년 12월 21일 병인	(火刺溫)兀狄哈	中樞 軍有 等 7人	來獻土宜	
172	11년 12월 23일 무진	幹朶里	都萬戶 朴毛都吾 等 7人	來獻土宜	
173	11년 12월 27일 임신	兀良哈	僉知中樞 所弓大 等 7人	來獻土宜	
174	12년 1월 1일 병자	兀良哈	中樞 阿伊多介 等 11人	來獻土宜	
175	12년 1월 9일 갑신	(火刺溫)兀狄哈	都萬戶 沙乙古大	來獻土宜	
176	12년 11월 1일 신미	兀良哈	司果 羅陽羅 等 6人	來獻土宜	
177		幹朶里	同知中樞 馬毛多赤 等 7人		
178	12년 11월 6일 병자	女眞	僉知 金塞古持 等 6人	來獻土宜	
179	12년 11월 9일 기묘	兀良哈	中樞 柳尙同介 等 7人	來獻土宜	
180	12년 12월 1일 신축	兀良哈	僉知 老童 等 6人	來獻土宜	
181	13년 11월 4일 무술	兀良哈	同知中樞 豆升巨 等 14人	來獻土宜	
182	13년 11월 15일 기유	兀良哈	(上護軍) 阿速 等 7人	來獻土宜	
183	13년 11월 21일 을묘	兀良哈	都萬戶 南羅 等 7人	來獻土宜	
184	13년 11월 22일 병진	兀良哈	(副萬戶) 金下乙伊(里) 等 7人	來獻土宜	
185	13년 12월 1일 을축	骨看兀狄哈	同知中樞 李都弄吾 等 7人	來獻土宜	
186	13년 12월 4일 무진	(尼麻車)兀狄哈	同知中樞 也堂只(其) 等 6人	來朝	
187	13년 12월 23일 정해	(火刺溫)兀狄哈	上護軍 所弄巨 等 5人	來獻土宜	
	14년 1월 4일 정유	(尼麻車)兀狄哈	也堂其(只) 等 6人	來獻土宜	12.4중복
		兀良哈 (骨看兀狄哈)	同知中樞 李都弄吾 等 7人	來獻土宜	12.1중복
188	14년 1월 17일	건주분위	幹黑能 等 4人	來獻土宜	
189	14년 3월 14일 병오	건주분위	李巨右 等	來獻土宜	
190	14년 4월 15일 정축	兀良哈(幹朶里)	中樞 文加乙巨 等 4人	來獻土宜	
191	14년 9월 4일 갑오	건주분위	都指揮 李多之哈 等 5人	來獻土宜	
192	14년 9월 15일 을사	건주우위	都指揮 趙伊時哈 等 8人	來獻土宜	
193		건주좌위	李木長哈		10.11인건 ; 10.19하직
194	14년 11월 7일 병신	幹朶里	中樞 馬多弄可(哈) 等 8人	來獻土宜	
195	14년 11월 11일 경자	兀良哈	中樞 巨應仇乃 等 7人	來獻土宜	

196	14년 11월 15일 갑진	兀良哈	中樞 李肖陽介 等 8人	來獻土宜	
197	14년 11월 22일 신해	兀良哈	(都萬戶) 柳乃也 等 2人	來獻土宜	
198		斡朶里	(護軍) 金昌巨 等 8人		
199	14년 11월 29일 무오	兀良哈	中樞 馬毛多赤 等 8人	來獻土宜	
200	14년 12월 6일 을축	女眞	都萬戶 朴丹用阿 等 8人	來獻土物	
201		斡朶里	中樞 馬千里 等 7人		
202	14년 12월 9일 무진	女眞	(中樞) 朴也郎哈 等 7人	來獻土宜	
203	14년 12월 19일 무인	斡朶里	中樞 童尙時 等 8人	來獻土宜	
204		(尼麻車)兀狄哈	中樞 阿仁加茂 等 7人	來獻土宜	
205	14년 12월 28일 정해	(骨看)兀狄哈	中樞 金麻尙哈 等 14人	來獻土物	
206	15년 1월 9일 정유	斡朶里	中樞 李阿多介 等 8人	來朝	
207	15년 2월 9일 병인	兀良哈	僉知 句赤格 等 10人	來朝	
208	15년 5월 9일 을미	斡朶里	赤羅右 等 4人	來獻土宜	
209	15년 6월 29일 갑신	건주우위	護軍 之阿大右(馬阿多右) 等 7人	來獻土宜	
210	15년 11월 21일 갑진	건주좌위	吐老 遣 童吾乙都古	來獻土宜	
211		건주우위	甫花土 遣 童哈答	來獻土宜	
212	15년 12월 8일 신유	건주본위	達罕의 長子 都指揮 李包羅多, 者羅太 等 6人	來獻土宜	
213	15년 12월 중	火刺溫兀狄哈	(中樞) 沙乙古大	永安道 來野人	
214	15년 12월 21일 갑술	兀良哈	中樞 老童	來朝	
215		兀良哈	中樞 伊時介 等 15人		
216	15년 12월 28일 신사	兀良哈	(上護軍) 阿速 等 7人	來獻土宜	
217	16년 1월 2일 을유	兀良哈(南 訥兀狄哈)	護軍 回伊波 等 7人	來朝	
218	16년 1월 5일 무자	兀良哈	中樞 柳尙同介 等 7人	來朝	
219	16년 1월 6일 기축	兀良哈	僉知 於夫介 等 7人	來獻土宜	
220	16년 1월 11일 갑오	兀良哈	中樞 李打兒非 等 8人	來獻土宜	
	16년 1월 15일 무술	兀良哈	中樞 李打兒非 等 8人	來獻土宜	위와 중복
221	16년 1월 18일 신축	兀良哈(斡朶里)	中樞 浪都郎哈(介) 等 8人	來朝	
222	16년 1월 23일 병오	(尼麻車)兀狄哈	中樞 其堂可 等 8人	來獻土宜	
223	16년 2월 5일 정사	骨看(兀狄)	中樞 李把刺 等 8人	來朝	

		哈)			
224	16년 2월 9일 신유	(尼麻車)兀狄哈	中樞 也堂其(只) 等 8人	來朝	
225	16년 2월 12일 갑자	斡朶里	副萬戶 浪於乙巨 等 2人	來獻土宜	
226	16년 2월 18일 경오	兀良哈	指揮 綽郎哈 等 8人	來獻土宜	
227	16년 2월 25일 정축	兀良哈	護軍 羅松介 等 7人	來獻土宜	
228	16년 3월 7일 무자	兀良哈	副司果 李吾道 等 7人	來朝	
229	16년 윤4월 3일 계미	斡朶里	上護軍 李昌阿 等 7人	來朝	
230	16년 10월 24일 신축	兀良哈	中樞 永守 等 8人	來獻土宜	
231	16년 11월 8일 을묘	兀狄哈(兀良哈)	中樞 南羅 等 8人	來朝	
232	16년 11월 18일 을축	兀良哈	中樞 舍吾大 等 16人	來獻土宜	
233	16년 11월 30일 정축	兀良哈(건주분위)	達罕 使 都指揮同知 李柳時哈 等 5人	來獻土宜	
234	16년 12월 6일 계미	斡朶里(건주우위)	羅下 使 童巨右同 等 5人	來獻土宜	
235	16년 12월 16일 계사	斡朶里(건주좌위)	土老 使 童羅稱可 等 5人	來獻土宜	
236	16년 12월 22일 기해	斡朶里(건주우위)	甫花土 使 王沙里 等 5人	來獻土宜	
237	17년 1월 19일 병인	(尼麻車)兀狄哈	都萬戶 也郎哈 等 6人	來獻土宜	
238	17년 11월 24일 을축	兀良哈(건주위)	李多之哈 等 5人	來獻土宜	
239	17년 11월 29일 경오	斡朶里	中樞 馬千里 等 7人	來朝	
240	17년 12월 13일 갑신	斡朶里(건주우위)	甫花土 遣 尙郎可 等 5人	來獻土宜	
241	17년 12월 17일 무자	兀良哈	司直 尼加大 等 7人	來朝	
242	17년 12월 21일 임진	兀良哈	中樞 所衆介 等 7人	來朝	
243	17년 12월 22일 계사	兀良哈	僉知 李麻具 等 7人	來獻土宜	
244	17년 12월 24일 을미	건주우위	羅下 遣 童甫伊多 等	來獻土宜	
245	17년 12월 30일 신축	尼麻車兀狄哈	中樞 阿仁加茂 等 8人	來朝	
246	18년 1월 7일 무신	兀良哈	中樞 巨夫介 等 14人	來朝	
247	18년 1월 10일 신해	兀狄哈(兀良哈)	中樞 莽刺 等 7人	來朝	
248	18년 1월 17일 무오	斡朶里	中樞 童東時 等 7人	來朝	
249	18년 1월 22일 계해	斡朶里(건	童久(夫)弓馬 等 5人	來獻土宜	

		주좌위)			
250	18년 1월 24일 을축	幹朶里	副護軍 童肖陽介 等 7人	來朝	
251	18년 2월 6일 병자	火刺溫兀狄哈	僉知 所弄巨 等 4人	來朝	
252	19년 윤1월 1일 병인	兀良哈(幹朶里)	中樞 童尙時 等 7人	來獻土物	
253	19년 윤1월 3일 무진	兀良哈	上護軍 愁隱豆 等 7人	來獻土宜	
254	19년 윤1월 4일 기사	兀良哈	中樞 文果乙大 等 7人	來獻土宜	
255	19년 윤1월 9일 갑술	兀良哈	司猛 沙代應巨 等 7人	來獻土宜	
256	19년 윤1월 17일 임오	幹朶里	護軍 李光應時大 等 7人	來獻土宜	
257	19년 2월 13일 정미	兀良哈	都萬戶 良介 等 14人	來獻土宜	
258	19년 2월 22일 병진	骨看兀狄哈	中樞 李都弄吾 等 7人	來獻土宜	
259	19년 2월 23일 정사	火刺溫兀狄哈	上護軍 洪多伊舍 等 5人	來獻土宜	
260	19년 2월 24일 무오	兀良哈	上護軍 引速哈 等 7人	來獻土物	
261	19년 11월 26일 을유	幹朶里	中樞 李阿多介, 都萬戶 克的 等 16人	來獻土宜	
262	19년 12월 6일 을미	兀良哈	大護軍 童都答哈 等 14人	來獻土宜	
263	19년 12월 16일 을사	骨看	中樞 金阿刺 等 8人	來獻土宜	
264		兀良哈	中樞 伊時介 等 8人		
265	19년 12월 22일 신해	兀良哈	都萬戶 句赤格 等 7人	來獻土宜	
266	19년 12월 28일 정사	兀良哈	副護軍 阿令(郎)介 等 8人	來獻土宜	
267	20년 1월 6일 을축	女眞	僉知 木當可 等 15人	來朝	
268	20년 1월 10일 기사	兀良哈	僉知 時郎介 等 7人	來朝	
269	20년 1월 18일 정축	兀良哈	僉知 木哈 等 7人	來朝	
270	20년 1월 27일 병술	尼麻車兀狄哈	都萬戶 也郎介 等 7人	來獻土宜	
271	20년 2월 8일 병신	南訥兀狄哈	大護軍 回伊波 等 6人	來朝	
272	20년 11월 16일 경오	兀良哈	中樞 管禿 等 8人	來朝	
273	20년 11월 20일 갑술	兀良哈	中樞 亦塔忽 等 8人	來朝	
274	20년 11월 26일 경진	兀良哈	中樞 永守 等 7人	來朝	
275	20년 12월 2일 을유	兀良哈	中樞 南羅 等 8人	來朝	
276	20년 12월 8일 신묘	女眞	中樞 朴丹用阿 等 8人	來獻土宜	
277	20년 12월 16일 기해	幹朶里	中樞 李肖陽介 等 7人	來朝	
278		兀良哈	中樞 舍吾大 等 7人		
279	20년 12월 21일 갑진	兀良哈	中樞 阿速 等 8人	來朝	

280		兀良哈	中樞 良哈 等 7人		
281	20년 12월 28일 신해	火刺溫兀狄哈	中樞 沙乙古大 等 10人	來朝	
282	21년 1월 8일 신유	兀良哈	上護軍 金沙下禮 等 8人	來獻土宜	
283	21년 1월 17일 경오	兀良哈	僉知 李伊里可 等 7人	來獻土宜	
284	21년 2월 9일 신묘	兀良哈	護軍 吉堂可 等 6人	來獻土宜	
285	21년 2월 30일 임자	尼麻車兀狄哈	都萬戶 也郎介 等 5人	來獻土宜	
286	21년 11월 12일 경인	兀狄哈(兀良哈)	中樞 舍吾大 等 16人	來獻土宜	
287	21년 11월 23일 신축	兀良哈	都萬戶 哈撒哈 等 8人	來獻土宜	
288		骨看兀狄哈	中樞 金麻尙哈 等 8人		
289	21년 11월 26일 갑진	兀良哈	副護軍 麻哈 等 8人	來獻土宜	
290	21년 12월 3일 경술	兀良哈	護軍 尼加大 等 7人	來獻土宜	
291	21년 12월 17일 갑자	骨看兀狄哈	中樞 李都弄吾 等 7人	來獻土宜	
292	21년 12월 19일 병인	兀良哈	中樞 亦塔忽 等 7人	來獻土宜	
293	21년 12월 24일 신미	斡朶里	中樞 童尙時 等 8人	來獻土宜	
294	21년 12월 28일 을해	斡朶里	中樞 李阿伊多可 等 7人	來獻土宜	
295	22년 1월 3일 경진	斡朶里	中樞 文加乙巨 等 7人	來獻土宜	
296	22년 1월 22일 기해	火刺溫兀狄哈	上護軍 伊時可 等 8人	來獻土宜	
297	22년 1월 24일 신축	斡朶里	李爾哈 等 2人	來獻土宜	
	22년 4월 22일 정묘	火刺溫兀狄哈	上護軍 伊時可 等 8人	來獻土宜	1.22중복
298	23년 1월 21일 임진	兀良哈	中樞 南羅等8人	來朝	
299		斡朶里	中樞 童尙時 等 8人		
300	23년 1월 25일 병신	兀良哈	中樞 永守 等 8人	來朝	
301	23년 2월 5일 병오	斡朶里	中樞 李阿伊多可 等 8人	來朝	
302	23년 2월 11일 임자	兀良哈	中樞 奇大 等 7人	來朝	
303	23년 2월 15일 병진	兀良哈	大護軍 阿令(郎)介 等 7人	來朝	
304	23년 2월 21일 임술	火刺溫兀狄哈	(僉知)(所)弄巨 等 7人	來獻土宜	
305	23년 2월 25일 임술	兀良哈	中樞 汝弄巨 等 8人	來朝	
306	23년 3월 1일 신미	兀良哈	中樞 浪時波赤 等 6人	來朝	
307	23년 3월 5일 을해	兀良哈	副護軍 羅陽介 等 7人	來朝	
308	23년 11월 6일 계유	兀良哈	中樞 時郎介 等 10人	來朝	

309		斡朶里	僉知 引速哈 等 7人		
310	23년 11월 11일 무인	兀良哈	護軍 尼加大 等 7人	來朝	
311	23년 11월 21일 무자	兀良哈	上護軍 撤哈連 等 7人	來朝	
312	23년 11월 23일 경인	斡朶里	中樞 浪都郎哈 等 7人	來朝	
313	23년 12월 1일 정유	兀良哈	僉知 沙主 等 14人	來朝	
314	23년 12월 11일 정미	兀良哈	都萬戶 李麻具 等 14人	來朝	
315	23년 12월 15일 신해	兀良哈	中樞 巨應仇乃 等 7人	來朝	
316	23년 12월 24일 경신	兀良哈	副司正 加麻耳 等 7人	來朝	
317	24년 1월 1일 정묘	兀良哈	僉知 羅松介 等 14人	來獻土宜	
318	24년 1월 11일 정축	兀良哈	上護軍 伊充應巨	來朝	
319		骨看兀狄哈	中樞 李把刺速 等 14人		
320	24년 1월 26일 임진	兀良哈	都萬戶 阿哈 等 8人	來朝	
321	24년 2월 21일 병진	火刺溫兀狄哈	司猛 有川 等 6人	來朝	
322	24년 11월 4일 을미	斡朶里	中樞 奴木哈 等 7人	來朝	
323	24년 11월 11일 임인	兀良哈	中樞 卓時 等 14人	來朝	
324	24년 11월 25일 병진	兀良哈	中樞 阿哥 等 7人	來朝	
325	24년 12월 3일 계해	斡朶里	中樞 李肖陽介 等 7人	來朝	
326		兀良哈	中樞 李巨夫介 等 7人		
327	24년 12월 11일 신해	兀良哈	司猛 土伊土 等 7人	來朝	
328	24년 12월 18일 무인	(女眞)	(僉知) 木當可 等 7人	來獻土物	
329	24년 12월 21일 신사	斡朶里	上護軍 童者士(吐) 等 7人	來朝	
330	24년 12월 25일 을유	兀良哈	中樞 所亏大 等 7人	來朝	
331	25년 1월 11일 신축	兀良哈	上護軍 刺古 等 14人	來獻土宜	
332	25년 1월 21일 신해	斡朶里	上護軍 克的 等 7人	來獻土宜	
333		兀良哈	中樞 伊時乃 等 14人		
334	25년 1월 28일 무오	火刺溫兀狄哈	中樞 照麟可 等 10人	來獻土宜	
335	25년 2월 5일 갑자	火刺溫兀狄哈	中樞 沙乙古大 等 9人	來獻土宜	
336	25년 2월 11일 경오	火刺溫兀狄哈	僉知 伊時可 等 6人	來獻土宜	
337	25년 8월 19일 을해	女眞 (온하위)	副萬戶 金主成可 等 2人	來獻土宜	
338	25년 11월 12일 정유	兀良哈	僉知 巨夫介 等 7人	來獻土宜	
339	25년 11월 17일 임인	兀良哈	中樞 亦塔忽 等 8人	來獻土宜	

340	25년 11월 30일 을묘	兀良哈	中樞 阿令介 等 8人	來獻土宜	
341	25년 12월 3일 무오	女眞	中樞 朴也郎哈 等 8人	來獻土宜	
342	25년 12월 7일 임술	斡朶里	上護軍 浪甫良介 等 7人	來獻土宜	
343	25년 12월 10일 을축	兀良哈	護軍 管禿 等 14人	來獻土宜	
344	25년 12월 19일 갑술	女眞	上護軍 撤塔木 等 7人	來獻土宜	

참고문헌

1. 저서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4,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김한규, 2005, 『천하국가』, 소나무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박옥걸, 1996, 『고려시대 귀화인 연구』, 국학자료원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園田一龜, 1953, 『明代建州女直史研究』(續), 國立書院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
 王臻, 2005, 『朝鮮前期と明建州女眞關係研究』, 中國文史出版社
 楊錫 外, 2008, 『明代東北疆域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 논문

- 강재훈, 2007, 「조선 성종대 朝會儀式과 朝會 운영」 『한국사학보』 27
 김구진, 1988, 「13C~17C女眞 社會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계승범, 2006, 「과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53
 김순남, 2009a, 「조선 成宗代 兀狄哈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보』 49
 _____, 2009b, 「조선 성종대의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68
 박정민, 2010, 「세조대의 여진관계와 정책」 『한국사연구』 151
 _____, 2012, 「조선 세조대의 여진인 내조와 여진인 귀속문제」 『전북사학』 41
 _____, 2013, 「조선 건국기 여진인 내조와 조선의 외교구상」 『역사학연구』 49
 이인영, 1937, 「鮮初女眞貿易考」 『진단학보』 8
 정다함, 2008,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동방학지』 141
 _____, 2011, 「‘事大’와 ‘交隣’과 ‘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 42
 정동훈, 2012, 「명대의 예제 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한성주, 2009, 「朝鮮前期 ‘字小’에 대한 고찰 -對馬島 倭人 및 女眞 努力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3
 _____, 2012, 「조선 세조대 ‘女眞和解事’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38
 于曉光, 「明朝と朝鮮圍繞女眞問題交涉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刁書仁, 「成化年間明と朝鮮兩次征討建州女眞」 『史學集刊』, 1999年 2期

■ Abstract ■

A Study of the Jurchen Envoy in Seongjong's Reign of Joseon Dynasty

Park, Jung-Min

This Study examines what relationship Joseon would set up between the Joseon and Jurchen focusing on the status of Jurchen envoy in King Seongjong's reign where the system of Joseon was completed. In this time, there were 344 Jurchen envoys as King Seongjong succeeded the Jurchen policy of inherited King. This paper studied how Joseon controlled the Jurchen envoy and why Joseon accept it by analysing the status of Jurchen envoy in trend, power and time. As a result, the intention of Jose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Jurchen envoy. Joseon would construct the self-centered order through Jurchen envoy while accepting the order of Ming.

As accepting Jurchen Envoy, Joseon made the reception rule and time of envoy. These rules and time are very similar to what Ming had. There were most Jurchen envoys in November, December and January to attend Dongii and Zhengcho congratulatory rites. Various policies and rites were completed in Seongjong's reign. In this time, reformation including envoy frequency, people, and time was finished, too. Therefore, this era has a strong influence on later Kings.

www.kci.go.kr

Key words : Jurchen, King Seongjong, envoy, congratulatory rites, a region order